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Student's Attribution Disposition and Self-Compassion on Trait Anger

Won Hee Jun^{1#}, Ji Yeong Seo^{2*}, Myoung Ju Jo²

¹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Korea

²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57, Oryundae-ro, Geumjeong-gu, Busan, Korea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hat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of attribution style and self-compassion on trait anger among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46 nursing students attending two nursing colleges located in Metropolitan Cities B and D in September 2017,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is study found that self-compass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subjects' trait anger ($\beta=-0.28, p=.002$) while attribution disposition-powerful other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beta=0.19, p<.033$). The F-statistic showed the model is good for the analysis ($F=11.66, p<.001$) although the explanatory power is low ($R^2=0.151$). The findings in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references to develop a program that would help nursing students, who will become future nurses, reduce and control their level of anger efficiently.

Key words: nursing students, anger, attribution, compassion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Erikson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정체감 형성에 가장 중요한 과업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대인관계의 경험이 건강한 성격 발달의 핵심이 될 수 있다(An & Lee, 2016; Park & Jung, 2018; Kim & Lee, 2019). 그러나 대인관계 갈등 시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소통과 사회적 기술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대인관계 문

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An & Lee, 2016), 이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개인의 안녕감을 위협하여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한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이론 교육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으로 과중한 학습량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등으로 일반대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많으며(Reeve, et. al., 2013; Byun & Lee, 2018),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분노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Byun & Lee, 2018). 또한 최근 의료 환경은 다양한 대상자의 전인간호 요구에 부응해야하며 임상현장 적응 과정에서 감정노동과 스트레스로 분노 정서를

The 1st author: Won Hee Jun, Tel. +82-53-258-7669, Fax. +82-53-258-7616, e-mail. jwh917@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Ji Yeong Seo, Tel. +82-51-510-0770, Fax. +82-51-510-0747, e-mail. marseo@cup.ac.kr

경험한다(Han & Kim, 2016). 이에 간호대학생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인 대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관심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Reeve, *et. al.*, 2013).

분노 감정은 공격이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분노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대인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Jeun & Son, 2010; Jun, 2016; Park & Jung, 2018), 심할 경우 중독과 우울, 불안 등의 정신 건강 문제와 폭력 행동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Song, 2013; Reeve, *et. al.*, 2013). 분노 중 상황과 시간에 관계없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적 경향성을 특성분노(trait anger)라 하며, 이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같은 상황에서 분노를 더 잘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Spilberger, *et. al.*, 1988). 그러므로 다양한 환경에서 수많은 관계에 노출되는 간호대학생들의 분노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동일한 환경에서도 부정적 사건이나 행동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분노 수준과 분노표현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Kim & Cho, 2010). 개인이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인지적 틀로써, 어떤 현상이나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귀인성향이라 하며, 이는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Kim & Park, 2014).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특성분노와 귀인성향 간에 관계가 있을 것이나, 이를 직접 확인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귀인성향은 3가지-어떤 행동의 결과를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지각하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내적귀인(internality), 어떤 사건의 결과를 권력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타인지향(powerful others)과 운이나 행운으로 돌리는 우연지향(chance)-로 나눌 수 있다(Levenson, 1981). 내적귀인의 사람은 문제해결전략을 만들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분노를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하지만, 타인지향

과 우연지향인 외적귀인의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억압하거나 부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으므로(Kim & Cho, 2010)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귀인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귀인성향과 특성분노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가 없으므로 특성분노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에 앞서 이들 간의 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적응적인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주요변인이자 임상적 개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자기자비가 주목받고 있다(Moon, 2018). 자기자비는 타인의 안녕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에게 친절하고 여유를 갖게 하는 건강한 자기개념이다(Park, 2016). 즉, 실패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상황을 왜곡하거나 자기중심의 고립감과 과잉동일시에서 벗어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망하는 태도를 가짐에 따라 자신과 타인과의 연결감을 느끼므로(Neff, 2003), 관계속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자비는 스트레스 대처 측면에서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바꾸는 조절 전략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친절하고 건강한 삶을 강화시키고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사건에 대한 거리두기와 같은 탈중심화로 역기능적인 정서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Kim, *et. al.*,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가 분노 반응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여 분노의 수준을 감소시키고(Lee & Sung, 2011), 효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여(Kim & Lee, 2019)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에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자신과 타인의 욕구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함으로써 상대방과 타협하여 갈등을 해결하게 됨에 따라(Yarnell & Neff, 2012), 분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분노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귀인성향과 분노표현 방식에 관한 연구(Kim & Cho, 2010)와 자기자비와 분노표현 방식에 관한 연구(Lee & Seoung, 2011)가 있다. 그러나 귀인성향과 자기자비가 특성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거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 자기자비 및 특성분노의 정도를 파악하고, 특성분노의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임상환경에 더욱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분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자기자비가 특성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귀인성향, 자기자비 및 특성분노의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특성분노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귀인성향, 자기자비 및 특성분노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귀인성향과 자기자비가 특성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자기자비가 특성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대상자는 B와 D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의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의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효과크기 .15, 독립변수 11개를 기준으로 최소 표본수는 123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53부를 배부하였으며, 최종 146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특성분노

특성분노는 Spilberger, *et. al.*(1988)이 제작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Chon *et. al.*(1997)이 표준화한 한국판 STAXI 중 개인의 일반적인 분노 경향성을 측정하는 특성분노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n, *et. al.*(199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 귀인성향

귀인성향은 Levenson(1981)이 개발한 귀인성향 검사를 An(1986)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귀인성향 척도는 3개의 하위성향(내적지향, 타인지향, 우연지향)별로 8개 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Likert 척도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An(1986)의 연구에서 내적지향 .68, 타인지향 .64, 우연지향 .7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내적지향 .69, 타인지향 .78, 우연지향 .75이었다.

3) 자기자비

자기자비는 Neff(2003)가 자기 자비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Self-Compassion Scale을 Kim, *et. al.*(2008)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한 한국 번역판 자기자비심 척도(K-SC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친절 5문항, 자기-비판 5문항, 보편적 인간성 4문항, 마음챙김 4문항, 고립 4문항, 과잉 동일시 4문항의 6개 하위요인,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각 문항 내용대로 얼마나 자주 행동하는지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높음을 의미하며, 총 26개의 문항 중 자기-비판, 고립, 동일시 3개 영역의 13개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Kim, *et. al.*(2008)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개의 간호대학에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은 모집공고문과 보조연구원을 통하여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내 게시판과 학생 휴게실에 모집공고문을 부착하여 본 연구에 대해 홍보하고, 보조연구원이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 작성에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에 응한 대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P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16048)을 받았다. 대상자에게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연구의 철회 시 설문지의 작성을 중단하고 동의서와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설문지와 동의서는 분리하여 수거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특성분노, 귀인성향 및 자기자비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특성분노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귀인성향, 자기자비 및 특성분노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146명 중 20-21세가 53명(37.1%), 22-23세가 62명(43.4%), 24세 이상이 28명(19.6%)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129명(88.3%)이었고, 학년은 2학년

Table 1. Trait ange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6)

Variables	Categories	n (%)	Trait anger	
			Mean±SD	t / F (p)
Age(yr)	20-21	53 (37.1)	1.84±0.56	1.27 (.283)
	22-23	62 (43.4)	1.98±0.55	
	≥24	28 (19.6)	1.84±0.38	
Gender	Male	17 (11.6)	1.83±0.63	-0.55 (.582)
	Female	129 (88.3)	1.90±0.52	
Grade [†]	1 st a	15 (10.3)	1.60±0.43	3.07 (.030) a<c
	2 nd b	48 (32.9)	1.96±0.61	
	3 rd c	44 (30.1)	2.02±0.54	
	4 th d	39 (26.7)	1.80±0.43	
Religion	Yes	79 (54.1)	1.89±0.51	-0.09 (.931)
	No	67 (45.9)	1.90±0.55	
Satisfaction with nursing	Satisfied	97 (66.4)	1.87±0.52	1.14 (.322)
	Common	42 (28.8)	1.90±0.52	
	Dissatisfied	7 (4.8)	2.19±0.69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Satisfied	88 (60.3)	1.87±0.52	0.47 (.626)
	Common	50 (34.2)	1.95±0.57	
	Dissatisfied	8 (5.5)	1.80±0.23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Good	114 (78.1)	1.85±0.49	1.97 (.144)
	Average	31 (21.2)	2.03±0.63	
	Poor	1 (0.7)	2.50±0.00	

* Missing data not included

[†] Scheffé test

Table 2. Degree of attribution disposition, self-compassion, & trait anger

(N=146)

Variables		Item score			
		Mean±SD	Min	Max	Range
Attribution disposition	Internality	4.52±0.48	2.75	5.75	1-6
	Powerful others	2.98±0.67	1.38	5.00	1-6
	Chance	3.31±0.67	1.75	5.38	1-6
Self-compassion		3.15±0.47	1.46	4.19	1-5
Trait anger		1.90±0.53	1.00	4.00	1-4

이 48명(32.9%)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9명(54.1%)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97명(66.4%)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활만족도는 만족이 88명(60.3%)이었으며, 지각된 신체 건강상태는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114명(78.1%)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2. 대상자의 귀인성향, 자기자비 및 특성분노의 정도

대상자의 귀인성향은 하위성향별로 최대 6점을 기준으로 내적지향은 4.52±0.48점이었고, 타인지향은 2.98±0.67점, 우연지향은 3.31±0.37점이었다. 자기자비는 최대 5점을 기준으로 3.15±0.47점이었고, 특성분노는 4점을 기준으로 1.90±0.53점이었다. <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특성분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특성분노는 학년(F=3.07, p=.030)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3학년이 1학년에 비해 특성분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

4. 대상자의 귀인성향, 자기자비 및 특성분노의 관계

대상자의 특성분노는 귀인성향 중 타인지향(r=.30

p<.001), 우연지향(r=.27, p=.001)과는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내적지향(r=.00, p=.976)과는 상관이 없었다. 자기자비(r=-.33, p<.001)와는 약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귀인성향 중 타인지향과 우연지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자비가 낮을수록 특성분노가 높았다. <Table 3>

5. 대상자의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특성분노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수인 타인지향, 우연지향, 자기자비와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 학년을 예측변수로 하여 단계입력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타인지향, 우연지향 및 자기자비는 양적변수이나, 학년의 경우 질적변수이므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더미변수의 기준학년은 1학년으로 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 범위가 .854로 0.1 이상이었고, Durbin-Watson값은 1.879로 잔차 간의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분산팽창인자인 VIF는 1.171로 10 미만이어서 투입된 변수들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F 통계량은 11.66(p<.001)으로

Table 3. Correlations among attribution disposition, self-compassion, & trait anger

(N=146)

Variables		Internal A.D.	External A.D.	Accident A.D.	Self-compassion	Trait anger
		r(p)				
A.D.	Internality	1				
	Powerful others	-.22 (.011)	1			
	Chance	-.17 (.044)	.69 (<.001)	1		
Self-compassion		.07 (.413)	-.38 (<.001)	-.38(<.001)	1	
Trait anger		-.00 (.976)	.30 (<.001)	.27 (.001)	-.33 (<.001)	1

*A.D. : Attribution disposition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 R^2 는 15.1%로 나타났다. 특성분노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자비($\beta = -0.28, p = .002$), 타인지향($\beta = 0.19, p = .033$) 순이었다. <Table 4>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특성분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분노관리 방안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귀인성향은 6점을 기준으로 내적 지향 4.52점, 우연 지향 3.31점, 타인 지향 2.98점 순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Kim & Park, 2014; Kim & Kim, 2015)에서 내적 지향 4.35~4.40점, 우연 지향 3.46~3.48점, 타인 지향 3.30~3.39점 순이었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자비는 5점을 기준으로 평균 3.15점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Lee & Seoung, 2011)의 평균 3.25점과 같이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은 고통을 겪는 자신에게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하듯, 타인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돌보고자 하며(자비적 사랑), 연민을 느끼며(정서적 공감), 타인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 하며(인지적 공감), 연대감을 가지게 되므로(Park, 2016), 예비간호사로서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점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자비가 보통이상인 것은 의미 있는 결과이다.

특성분노는 4점을 기준으로 평균 1.90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대학생의 특성분노를 조

사한 Jun(2016)의 연구에서의 1.98점과 유사하였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의 1.79점(Park & Jung, 2018)과 1.57점(Byun & Lee, 2018)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이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분노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나,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대인관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An & Lee, 2016).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환자와의 관계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분노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정서의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특성분노의 차이를 살펴보면 1학년에 비해 3학년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Byun & Park(2018)의 연구에서 1학년에 비해 2학년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처럼 1학년에 비해 다른 학년에서 특성분노가 유의하게 높은 것은 2학년은 1학년에 비해 전공교과목이 확대되고, 3학년은 전공교과목에 임상실습이 더해지면서 과중된 학업스트레스가 특성분노의 정도를 높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과에서는 실습을 시작하기 전인 저학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변수 간 상관관계에서는 타인 지향과 우연 지향이 높을수록 특성분노의 수준이 높았으며,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특성분노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인성향과 특성분노와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가 없어 직접비교는 어려워 귀인성향과 특성분노 각각에 대한 선행연구로 비교하고자 한다. 귀인성향과 분노표현방식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Kim & Cho, 2010)에서 우연지향과 타인지향은 분노억제와 표출 간에 정적 상

Table 4. Predictors of trait anger

(N=146)

Variables	β	t	p	R ²	Adj R ²	F (p)
Self-compassion	-0.28	-3.17	.002	.121	.114	11.66 (<.001)
Attribution disposition (Powerful others)	0.19	2.15	.033	.151	.138	

Reference group: 1st year student

관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Jun(2016)의 연구에서는 특성분노가 역기능적 분노표현(분노표출과 분노억제)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는 외적귀인과 특성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잦아진다는 것으로, 외적귀인 수준이 높을수록 특성분노 수준이 높아지며, 1학년에 비해 3학년에서 특성분노가 더 높다는 본 연구결과를 볼 때 부적절한 분노표출과 억제로 더 큰 문제가 유발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적귀인을 하는 간호대학 저학년 학생의 귀인성향에 주의를 기울여 분노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분노관리기술의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자기자비는 특성분노와 부적상관을 보여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특성분노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자비와 특성분노와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자기자비가 역경을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노를 완충해준다는 선행연구(Germer & Neff, 2013; Kim & Lee, 2019)의 보고를 고려했을 때, 간호대학생의 자기자비를 높일 수 있다면 특성분노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긍정적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자비와 타인지향이였다. 간호대학생의 특성분노의 가장 큰 요인은 자기자비였다. 이는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경우 갈등이 생겼을 때, 부정적인 정서에 오래 머물지 않고 정서적 평형을 유지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해나가므로(Baker & McNulty, 2011) 분노의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간호대학생의 특성분노 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자기자비 향상을 위한 콘텐츠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간호대학생의 특성분노의 두 번째 영향요인은 귀인 성향 중 타인지향이였다.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 분노를

억제하거나 표출하게 되며, 이로 인해 특성분노가 증가할 수 있는 것(Kim & Cho, 2010)을 고려한다면, 타인지향인 간호대학생의 특성분노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사건의 결과를 지각하는 내적귀인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귀인성향, 자기자비가 특성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특성분노의 차이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의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자비와 귀인성향 중 타인지향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분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평가하였으므로 귀인성향, 자기자비, 분노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관찰과 면접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노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 외적 귀인성향보다는 내적귀인성향과 자기자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언한다.

셋째, 분노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내·외적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고려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입(No. NRF-2015R1C1A1A02037485).

References

- Ahn, Jae Hee and A Ra Lee. 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Interpersonal Problems and Trait Anger of College Stud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3(6): 47-69.
- An, Gwi Deok. 1986. The Effects of Locus of Control, Perceived Classroom Climate, and Their Interaction on Academic Performance and Learning Attitud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Baker, Levi R. and James K. McNulty. 2011. Self-compassion and Relationship Maintenance: The Moderating Roles of Conscientiousness and Gend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5): 853-873.
- Byun, Sang Hee and Hyun Joo Lee. 2018. The Relationship of Life Stress, Anger, and Optimism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8(12): 150-160.
- Chon, Kyum Koo, Doug Woong Hahn, Chang Ho Lee, and Charles D. Spielberger. 1997.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Anger and Blood Pressur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Health*. 2(1): 60-78.
- Germer, Christopher K. and Kristin D. Neff. 2013. Self-compassion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9(8): 856-867.
- Han, Jin Ah and Mi Jin Kim. 2016. The Convergence Study of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s on Anger,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3): 87-98.
- Jeun, Hyun Suk and Chong Nak Son. 2010. The Relationship among Mindfulness, Trait Anger, and Irrational Belief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9(4): 989-1007.
- Jun, Won Hee. 2016. Trait Anger, Anger Expression, Positive Thinking and Gratitude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5(1): 28-36.
- Kim, Ji Won and Hee Kyung Lee. 2019. The Influence of Self-Compassion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pathy.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9(3): 452-462.
- Kim, Jin Joo and Gyu Pan Cho. 2010.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ttributions of University Students on Anger Expression Styl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2): 891-902.
- Kim, Kyeong Eui, Geum Dan Yi, Yong Rae Cho, Suk Hi Chai, and Woo Kyeong Lee. 2008. The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3(4): 1023-1044.
- Kim, So Myeong and Sang Youn Park. 2014. The Effects of Attribution Disposition,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6): 3409-3421.
- Kim, Su Ol and So Myeong Kim. 2015. Effect of Attribution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29(3): 452-462.
- Lee, Sang Hyun and Seoung Yun Sung. 2011. The Buffering Effect of Self-Compassion on Anger Thought and Expression.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3(1): 93-112.
- Levenson, H. 1981. Differentiating among Internality, Powerful Others and Chance. Lefcourt Herbert M. (eds.).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New York: Academic Press. 1: 15-63.
- Moon, Jeoung Soon. 2018.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sychosocial Maturity in College Students: Self-Compassion Mediation Effec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7(5): 1069-1079.
- Neff, Kristin D. 2003.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2(3): 223-250.
- Park, Min Hyang and Gye Hyun Jung. 2018. Impact of Depression and Anger on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Cap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Crisisonomy*. 14(2): 191-203.
- Park, Se Ran. 2016. The Effect of Self Compassion on Concern for Others' Well-Be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6(2): 187-212.
- Reeve, Kristen L., Catherine J. Shumaker, Edilma L. Yearwood, Nancy A. Crowell, and Joan B. Riley. 2013. Perceived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s. *Nurse Education Today*. 33(4):

- 419-424.
- Song, Mi Kyoung. 2013. The Influence of Anger, Alienation on Alcohol Addiction, and Internet Addiction: Behavioral Activation as Mediator. *Forum for Youth Culture*. 36(1): 60-83.
- Spielberger, Charles D., Susan S. Krasner, and Eldra P. Solomon.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Janisse M.P. (eds.).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New York: Springer Verlag. PP: 89-108.
- Yarnell, Lisa M. and Kristin D. Neff. 2012. Self-compassion, Interpersonal Conflict Regulations, and Well-being. *Self and Identity*. 12: 146-159.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 2008.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건강*. 13(4): 1023-1044.
- 김소명, 박상연. 2014.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 *한국자료분석학회*. 16(6): 3409-3421.
- 김수울, 김소명. 2015.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9(3): 452-462.
- 김지원, 이희경. 2019. 대학생의 자기자비가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1): 1-26.
- 김진주, 조규관. 2010.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귀인성향이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2): 891-902.
- 문정순. 2018. 대학생의 우울과 심리사회적 성숙성과의 관계: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7(5): 1069-1079.
- 박민향, 정계현. 2018. 간호대학생의 우울 및 분노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4(2): 191-203.
- 박세란. 2016. 자기자비가 타인의 안녕에 대한 관심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6(2): 187-212.
- 변상희, 박현주. 2018.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분노와 낙관성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150-160.
- 송미경. 2013. 대학생의 분노, 소외감이 알코올중독,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36: 60-83.
- 안귀덕. 1986. 귀인성향, 지각학습풍토 및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안재희, 이아라. 2016. 대학생의 특성분노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6): 47-69.
- 이상현, 성승현. 2011. 분노사고와 분노표현에 있어서의 자기자비의 완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93-112.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C. D.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전원희. 2016. 대학생의 특성분노, 분노표현, 긍정적 사고 및 감사성향. *정신간호학회지*. 25(1): 28-36.
- 전현숙, 손정탁. 2010. 마음챙김, 특성분노 및 비합리적 신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4): 989-1007.
- 한진아, 김미진. 2016. 간호사의 분노,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에 대한 대인돌봄행위의 융합적 연구.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7(3): 87-98.

Received: Jul. 16, 2019 / Revised: Aug. 28, 2019 / Accepted: Sep. 2, 2019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자기자비가 특성분노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귀인성향, 자기자비가 특성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B와 D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의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분노는 귀인성향 중 타인지향($r=.30$, $p<.001$), 우연지향($r=.27$,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자비($r=-.33$, $p<.001$)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F 통계량은 11.66($p<.0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 R^2 는 15.1%로 나타났다. 자기자비($\beta=-0.28$, $p=.002$), 외적 지향($\beta=0.19$, $p=.033$) 순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분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귀인, 자비, 분노

Profiles **Won Hee Jun** : She received her Ph.D.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in 2012. She is Assistant Professor of Nursing College in Keimyung University.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Mental Health Nursing(jwh917@hanmail.net).

Ji Yeong Seo : She received her Ph.D.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07. She is Associate Professor of Nursing College in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Nursing Care of pediatrics(marseo@cup.ac.kr).

Myoung Ju Jo : She received her Ph.D.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in 2013. She is Assistant Professor of Nursing College in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Nursing Care of Women and Pediatrics(nicupicu@cup.ac.kr).